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교구청에서 주최하는 Parish Self-Study Meeting 에 사목위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4월 22일(화) 저녁 7시-8시 30분
- 장소: St. Cecilia Catholic Church
434 Norton Rd. Columbus, OH

◆ 복사단 부모 모임

- 일시: 4월 27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오늘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카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친교 준비 봉사자

- 4월 20일: 최영자
- 4월 27일: 조우석

< 꽃씨를 담은 마침표처럼 > 중에서

이해인

비 온 뒤의 햇빛 속에
 나무들이 들려주는
 그 깨끗한 목소리로

별것 아닌 일로
 마음이 뽕뽕 얼어붙었던
 친구와 오랜만에 화해한 후의
 그 티없는 웃음으로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못 견디게 힘든 때에도
 다시 기뻐하고
 다시 시작하여
 끝내는 꽃씨를 담은 마침표 찍힌
 한 통의 아름다운 편지로
 매일을 살고 싶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부활 제5주일 April 20, 2008



<양치기 요셉>

마르크 샤갈(1887-1985), 유화, 샤갈 성서화집, 프랑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2.00
교 무 금	\$1,180.00

- 교 무 금: 이봉모 김도형 정동완 박석현 해주영 서경환 이재욱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6,1-7

“신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화답송



제 2 독서 베드로 1서 2,4-9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4,1-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단 명	8,265단 72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35단 2명	6,265단 66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35단 2명	2/22/04-4/13/08 (216주)

☎ 총누계: 196,910단 12,664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4월 20일	4월 27일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정동완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34 ♫ 봉헌: 25
♫ 성체: 168 167 ♫ 파견: 132

가야만 할 길

안병철 베드로 신부, 서울대학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당혹해 하고 당황할 것을 염려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요한 14,3). 이 말씀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현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현존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요한 14,5)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라고 단호한 어조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미 걸어오셨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 주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곧 아버지 하느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보는 하느님을 뵈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간절한 인간적인 욕구를 토해 냅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한 14,9)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친교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곧 아버지의 말씀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 또한 아버지의 업적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 역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무릇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깊은 사랑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 가셔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지를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예언자적인 소명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